

시력교정, 라식수술 어디서 어떻게

경험 많고 최신장비 갖춘 병원 찾아라

시력교정술은 정확한 사전 검사 후 전문 의와 상담을 통해 다양한 수술 방법 중 본인에게 가장 알맞은 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고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다양한 시력교정수술은 2010년이 되면서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로 개인에게 맞춤형 수술이 가능해지고 있다.

라식(다빈치 라식, 아마리스 라식, 블루라식), 라섹(블루 M, 자가혈청, 무통)을 비롯해 안내렌즈삽입술(알티플렉스, 알티산, ICL) 등으로 크게 분류된다.

과거 절제 미세각막절삭기를 이용하던 라식 수술은 모든 과정이 레이저를 이용해 시술되고 있으며, 이전 과학기술의 발달로 더욱 빠르고 안전하게 정확하게 레이저 수술이 실현되고 있다.

전문성과 안전성을 필요로 하는 의료분야에 있어서는 수많은 수술방법 중 본인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진의 풍부한 임상경험과 여러 기종의 최신 장비를 구비해 환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전문병원의 선택이 필요하다.

◇임상사례 및 전문 안과=실력 있는 전문의와 최신기기의 구비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최적의 조합이다. 최소 1천례 이상의 라식 성공 사례와 5년 이상의 임상 경험을 가진 전문의들이 근무하는 병원인지를 확인하고 여기에 진화하는 시력교정술에 맞춰 최신 장비를 구비한 병원의 선택이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기기로 시술한다고 하더라도 시술을 담당하는 전문의의 임상경험이 부족하다면 환자 입장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다. 풍부한 임상사례는 성공적인 시술 체험자가 많은 병원을 뜻하기도 하다.

시력교정술을 받으면 부작용에 대한 열려치원을 넘어서서 교정시력을 유지하지



밝은안과21 윤길중 원장이 안경 사용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 20대 여성 회사원에게 라식수술을 하고 있다.

정밀한 사전 검사로 맞춤형 시술법 찾아야 최적의 레이저 기종 선택해야 부작용 없어

위해 지속적인 안과 검진을 받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후 관리와 함께 책임을 다하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장비의 중요성=시력교정술에 사용되는 엑시머 레이저도 기종에 따라 성능이 다양하다. 환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양한 레이저 기종을 보유한 병원을 찾아 수술 방법을 선택 받는 것이 좋다. 즉 환자들의 눈은 손바닥의 지문처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자신의 눈에 맞는 레이저 기종을 선택하고 안전성과 최상의 시력 결과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엑시머 레이저의 추세는 flying

spot의 방식 레이저 빔 조사방식으로 대표적인 것이 아마리스, 알레그레토 블루라인 등의 레이저가 있다. 그 중 아마리스 라식은 빔 사이즈가 0.54나노미터로 가장 작아 더욱 정밀하고 섬세한 각막절삭이 가능, '완벽기술 제7세대 엑시머 레이저'라 불리고 있다. 작은 레이저빔으로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각막에 불필요한 에너지 전달로 인한 과교정이나 저교정 등의 부작용이 없고, 실시간 잔여 각막두께가 기록돼 시력 개선효과가 우수하다.

◇체계적 정밀 검사와 안전성=시력교정수술 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수술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정확한 검사를 통해 본인의 눈에 맞는 수술인지 판별하는 것이다.

수술 전 각막 질환·녹내장 유무·수정체·망막 등 눈 상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수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굴절검사·세극등 현미경검사·각막만곡도검사·각막 지형도검사·안저검사·시야검사·각막두께 검사·동공크기·CT검사·눈물검사 등을 꼭 받은 후 안과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야 가장 안전한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사전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공적인 결과를 보장할 수 없게 된다. 사전 검사는 시술하는 병원에 따라 적어도 50여 항목의 검사가 필수적이며, 검사의 수와 종류가 다르지만 사전 검사의 항목이 많을수록 자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도움말 = 윤길중 밝은안과21 원장〉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병원 심장질환 특성화연구센터 정명호교수팀 개발

장성에 '관상동맥 스텐트' 공장 설립

심장수술의 필수 의료부품인 '관상동맥 스텐트'를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장성 나노바이오센터에 문을 연다. 스텐트는 제조 원가가 1만원 이하지만 개당 200~300만원 정도의 비싼 가격에 전량 수입하고 있어, 자체 제작·시판할 경우 외국으로 유출되는 연간 수백억원의 비용 절감은 물론 부가가치가 어떤 산업보다 높아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스텐트는 국내에서 전남대병원 정명호 교수팀(사진)에 의해 개발됐지만 지금까지 공장이 없어 제작을 할 수 없었다. 정명호 교수는 지난 2007년부터 스텐트 공장 설립을 추진했으며, 3년여 만인 오는 9월 완공될 예정이다.

심혈관 질환은 한국인 성인 사망 원인 중 1위를 차지한 암에 이어 2위를 할 만큼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심혈관 질환에서 주로 나타나는 협심증, 심근경색증인 관상동맥 질환은 최근 10년간 한국 성인에게 급증해 사망률의 주원인이 됐다.

관상동맥이란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으로서 여기에 기름이 끼거나 혈전 등이 발생하면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이 발생하며 급사의 원인이 된다. 이 경우 좁아지거나 막힌 관상동맥을 뚫어주는 시술을 하게 되고 이 시술을 관상동맥 중재술이라고 한다. 주로 풍선을 이용해 혈관을 넓힌 다음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혈관삽입용 금속그물망'인 스텐트를 막힌 곳에 삽입한다.

스텐트는 전량 외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수입 약품 및 시술 기구 중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국내 공장이 없어 제품화를 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스텐트 국내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한 전



‘심장질환 치료를 위한 생체재료 개발’ MOU를 맺었으며, 국내 회사인 (주)엠아이텍과 공동으로 스텐트의 국산화를 위해 노력했다.

결국 지난 6월 국내 최초로 한국 심혈관계 스텐트 연구소를 장성 나노바이오센터에 설립, 스텐트 공장 건립을 들어갔으며 오는 9월 완공된다.

특히 정명호 교수가 개발한 스텐트는 현재 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비해 개발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우수한 것이어서, 국산 스텐트가 제작·판매될 경우 심근경색증 환자들에게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시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명호 교수는 "장성 나노바이오센터의 관상동맥 스텐트 공장 완공과 국립심혈관센터 유치에 고부가 가치 창출로 낙후된 광주·전남의 경제를 살리고 발전시킬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우리 지역 심혈관계 환자들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병원 어린이 전문병원 짓는다

500억원 투입 2013년까지 200병상 규모

전남대병원이 전국 최고 수준의 어린이 전문 병원을 짓는다.

전남대병원은 최근 신생아에서 소아 청소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광주·전남 어린이 전문병원 사업자로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남대병원은 서울대병원(1985), 충남대병원(1993), 부산대병원(2008)에 이어 4번째로 어린이 전문병원을 건립하게 됐다.

전남대병원은 전국 최고 수준의 어린이병원을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안에 업체를 선정하고 전남대 의과대 부지 안에 2013년까지 총면적 1만6천여㎡, 200병상(응급실 6병상 제외)

규모의 지하 4층, 지상 8층 건물을 완공할 예정이다. 건물 신축에는 국비 150억원·광주시 50억원·전남도 10억원·병원 부담 290억원 등 모두 500억원이 투입된다.

어린이병원이 들어서면 지역 소아과 의원들과 협력해 어린 환자들이 수도권 병원으로 가는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전문인재 육성, 소아 관련 질환과 희귀 난치성 질환의 임상연구 거점으로 새로운 치료법 개발, 다문화가정 등 의료 소외 계층 어린이에 대한 효율적인 치료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병원 측은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

조선대 치의학전문대학원, 美펜실베이니아 치과대학과 교류협약

조선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원장 김수관·왼쪽)이 미국 펜실베이니아 치과대학(학장 Denis Kinane)과 손잡고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한국 치의학 발전을 선도한다.

조선대 치의학전문대학원은 최근 치과대학 1층 교수회의실에서 미국 펜실

베이니아 치과대학 Denis Kinane 학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승국 교수와 교류협약을 체결했다.

양 대학은 향후 5년간 학생 및 교수 및 대학 간 교류는 물론 상호간 교육과정과 도서자료, 학문자료를 공유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치의학 발전을 위

해 학술 교류와 산학 협력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로써 조선대 치과대·치의학전문대학원은 재학생이거나 졸업생이면 누구나 와튼스쿨과 덴탈스쿨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펜실베이니아대학에서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됐다. 현재 조



산대에서는 이수민 졸업생이 펜실베이니아 치과대학원에서 유일하게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

비수술적 성형, 히알루론산 시술

부작용 최소화, 피부 재생, 탄력 향상, 주름 개선

나는 피부에 주름이 생기면 정말 고민이 되고 미용을 좋아한다. 피부 노화 현상은 정말 고민이 되고... (text continues)

비수술적 성형, 히알루론산 시술은 피부 노화 현상을 개선하고 미용을 좋아한다. 피부 노화 현상은 정말 고민이 되고... (text continues)

김영길 성형외과 의원
☎ 061-227-3777 무등극점 상